

기고

빠빠용은 어떻게 그 험한 바다를 건넌을까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전설적 명배우 스티브 맥퀸이 열연한 1973년 영화 '빠빠용'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죄수 빠빠용의 모습이다. 프랑스령 적도 기니의 망망대해 한가운데 악마의 섬에 갇힌 빠빠용은 자유를 향한 탈주 의지를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인물로 그려진다. 코코넛 열매가 든 자루를 바다에 던지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 그가 거센 조류에 밀려 떠내려가는 코코넛 자루에 매달려 "나는 아직 여기 살아 있다"고 외치는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할 그에게 만약 코코넛 자루가 아니라 '구명조끼'가 있었다면 탈옥이 조금 더 수월했을까?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몸을 물 위에 뜨게 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라이프 재킷(life jacket), 라이프 베스트(life vest), 메이 웨스트(mae west) 등으로 풀이된다. 말 그대로 '생명'(life)과 연관된 '재킷'(jacket) 혹은 '조끼'(vest)라는 뜻이다.

메이 웨스트(mae west)는 원래 1930~1940년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던 어느 미국 여배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위선을 조롱하고 당당한 삶을 추구했던 이 배우는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Good girls go to heaven, bad girls go everywhere) 등 여러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구명조끼에 그녀의 이름이 사용된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만든 공기 팽창식 구명조끼를 병사들이 장난삼아 인기 여배우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원시적 형태의 구명조끼는 고대인들이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공기를 넣은 동물의 방광 주머니, 동물 가죽, 입구를 봉한 호리병 등을 사용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순한 자루 형태에서 오늘날과 같은 조끼 형태로 만든 사람은 1854년 영국 왕립구명보트기구의 책임자였던 존 로스 워드다. 그는 구명보트 승조원들이 바다의 악천후에 견디고 바다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끼에 코르크를 채워 넣어 구명조끼를 고안했다.

구명조끼의 기본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조끼 형태에 가벼운 부력재를 넣는 방식과 수압이나 수분을 감지해 가스가 폭발하는 자동팽창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기본 개념에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한 발열 물질을 내장하거나 조난위치를 구조대가 찾기 용이하도록 위치추적 장치인 GPS나 RFID(무선인식)가 부착된 상품 등도 출시됐다.

빠빠용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탈출할 때 사용한 코코넛 자루에서 최신형 첨단 조끼 형태까지 구명조끼는 아주 오랜 기간 개량이 이뤄졌다. 이는 구명조끼가 해양 조난 시 생명을 담보해 주는 최소한의 필수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연안해역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안 사고로 인한 사망자 129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11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통영 욕지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 사망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구명조끼 해 주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생명(Life)의 L과 재킷(Jacket)의 J를 나타내는 손 모양을 하며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바다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입기부터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빠빠용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다다른 것으로 그려진다. 영화의 엔딩 자막은 그가 여생을 자유롭게 살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영화의 실제 모델이자 작가인 앙리 샤리에르의 삶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불굴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을 이기기는 어렵다. 어설프케라도 만든 코코넛 자루가 없었다면 빠빠용 또한 악마의 섬에서 죄수로서의 삶을 다한 뒤 섬 한 귀퉁이에 허망하게 묻혀 있지 않았을까. 물놀이 안전도 구명조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 여름이다. ①

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홍보대사들이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인 샘 해밍턴과 함께 벤틀리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있다.

